
 산업통상자원부		<h1>보도자료</h1>			
<a href="http://www.motie.go.kr">http://www.motie.go.kr</a>					
2019년 12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 26.(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2. 26.(목)	담당부서	무역진흥과		
담당과장	이상준 과장(044-203-4030)	담당자	진승덕 홍성진	사무관(044-203-4035) 주무관(044-203-4036)	

## 범부처 `20년 5,112억원을 투입, 7만여건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총력지원

□ 정부는 내년 수출회복을 위해 5,112억원을 투입해 약 7만여건의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6일(목) 수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올해 4번째로 개최하고, ‘20년 범부처 해외마케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 `19년 제4차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19.12.26(목) 15:00 ~ 16:30 /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대상 : 산업부(무역투자실장 주재), 중기부, 농림부 등 7개 관계부처, 16개 광역지자체, 무역협회, KOTRA, 중기중앙회, NIPA 등 15개 유관기관

□ 이날 회의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은 내년 기록치 않은 수출여건 속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바우처 등 ‘20년 해외마케팅 지원에 올해 대비 14.4% 증가한 5,112억원을 투입하여 약 7만여건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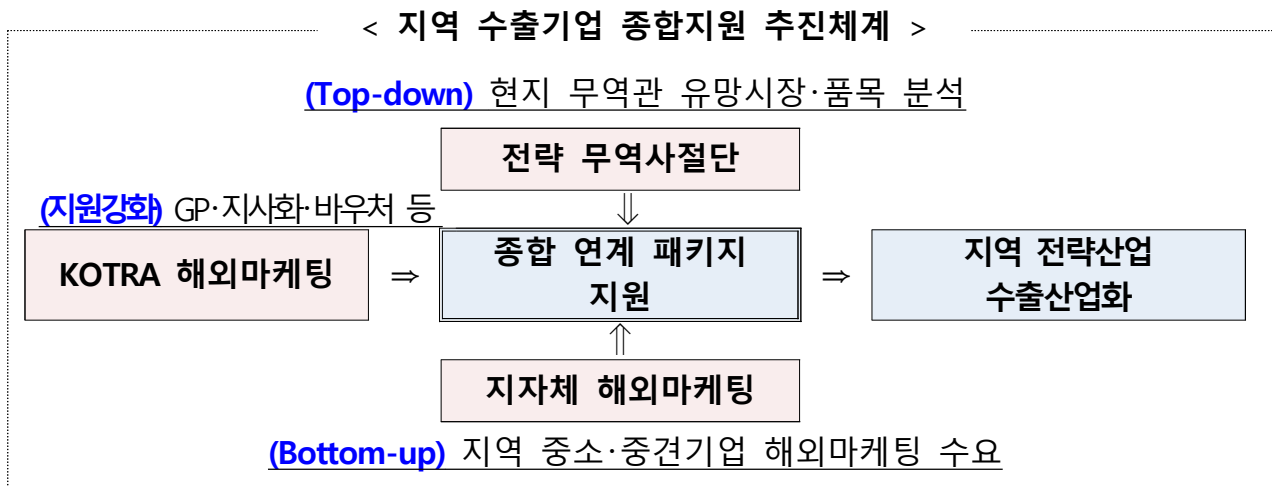
□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 ① 기업 수요가 높은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은 참가규모를 대형화하고 품목을 전문화하여 보다 많은 유력 바이어 유치와 수출성약 성공률 제고 등 지원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한다.

- 이를 위해, CES, MWC 등 30개 이상의 글로벌 유명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축하고, 진출시장·유망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규모 있는 사절단을 구성하는 「전략무역사절단」을 '20년 신설해 82회 집중 파견한다.

\* 동일 전시회 내 다수 부처·지원기관의 한국관을 동일 디자인·인근 위치로 통합하고, 세미나·바이어초청·체험부스 등을 다수 부처·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 ② 지역 기업의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코트라의 국내외 지원수단을 상호 연계하는 지역 수출기업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코트라 무역관의 글로벌 시장분석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수요, 코트라의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수출 컨설팅부터 맞춤형 마케팅, 후속 성약지원까지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 예시: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 전략무역사절단/해외전시회 참가 → 유망바이어 발굴 → 무역관에서 현지 지사역할 지원 → 유망바이어 국내 초청 → 성약후속지원 등

**< '20년 지자체-코트라 협업 중점 지원 분야 >**

지역	중점 분야	지역	중점 분야
부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중장비	충북	뷰티바이오원료, 기계
경기	소재부품, 콘텐츠	경기북부	소비재, 섬유
경남	자동차, 기계부품, 조선, 항공	강원	식품, 소비재
광주전남	금형, 신재생에너지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기계, 소비재
전북	탄소소재, 소비재	인천	소비재, 의약품
울산	자동차, 조선, 기계	대전충남	소비재, 소재부품

③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 지원하고 신산업·소비재 등 新수출성장동력 지원을 강화해 수출품목을 고도화한다.

-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해외전시회 지원 비중을 현재 35%에서 45%로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무역사절단을 '19년 32회에서 '20년 50회로 강화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수출바우처를 신설해 300개사를 집중 지원한다.
- 소비재는 한류가 거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재 무역사절단을 50회 파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강화하는 한편, 한류박람회, K-Contents, 브랜드 K, K-씨푸드 등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상호 연계·강화\*해 한류를 활용한 현지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 부처간 한류·소비재 행사 연계 강화를 위한 소비재수출 워킹그룹 구축('20.1분기)

-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은 신산업 사절단(7회→10회)을 확대하고 드론·전기차·핀테크 전시회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VR·AR 수출컨소시엄, 의료 해외진출 등 신산업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④ 해외마케팅을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남방·신북방 무역사절단을 '19년 89회에서 '20년 100회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비중도 '19년 26.4%에서 '20년 27.8%로 지속 확대한다.

- 또한, 현지에서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지 新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20년 3개소 신설하고 현재 모스크바 무역관에 설치된 한·러 산업기술 협력데스크를 러시아 전체 무역관 4개소로 확대한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내년은 수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점” 이라면서,

- “최대한 이른 시점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양적·질적으로 강화된 해외마케팅과 무역금융을 토대로 수출기업에 대한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을 연초부터 즉시 가동하는 한편,”
- “기업들이 정부의 수출지원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도 최대한 노력할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진승덕 사무관(☎ 044-203-4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